

IX GOLD National Leaders 미팅 참가기

오연목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장소: 미국 필라델피아 Hilton Garden Inn

일시: 2013년 5월 18일 오전 10시~정오 12시

참석자: 23여명

참석국가: 독일, 벨기에, 우루과이, 스페인, 체코, 오스트레일리아, 홍콩, 필리핀,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등

1. 서론

저자가 GOLD National Leaders 미팅에 참여한 것이 이번 필라델피아 미팅까지 합하면 다섯 번이 된다. 저자가 GOLD 미팅에 첫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미국 호흡기내과 교수이신 Fernando Martinez 선생님께서 Airway Vista 강의하러 서울에 오셨을 때 Martinez 선생님이 내게 추천하여 주시겠다고 한 것이 시작이 된다. 당시 GOLD National Leaders 미팅의 한국 대표로는 서울의대 심영수 교수님 이름이 올라 있었으나 은퇴를 얼마 남기지 않고 있으셔서인지 GOLD 미팅에서 만나 뵈는 적은 없었다.

이번 필라델피아 GOLD 미팅뿐만 아니라 언제고 이 미팅을 참석할 때면 새로움을 느끼고 배우는 재미가 있어 좋은 것 같다. 첫 한두 번은 세계 여러 나라 호흡기교수들이 참여하여 중요한 임상적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흥미도 크게 있었다. 또한 참신하였던 것은 미팅을 주도하는 교수들도 미국이 아니라 유럽의 덴마크, 독일, 스페인, 이태리 등 귀에 낯선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미국 영어를 쓰는 미국 주도 미팅에 익숙해 있던 저자에게 더 새롭게 들어 온 것 같다. 실제 참석하는 교수는 세계 방방곡곡에서 오셔서 라틴아메리카의 브라질, 우루과이 등과 아시아로는 필리핀, 일본, 중국, 베트남,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 등인 것이 National Leaders 미팅에 걸맞다는 생각이 든다.

그 동안의 미팅 중 특히 2011년도 미팅 때는 GOLD document (지침서) 내용이 크게 바뀌면서 미팅에 참석하는 대표들이 많이 늘었고 내용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이어져 흥미를 더 했던 기억이 있다. COPD 환자 분류를 A~D로 하면서 참석자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었고 이에 대해서 질문과 응답으로 미팅이 순식간에 지나갔었던 기억이 있다. 이번 필라델피아 GOLD National Leaders 미팅은 2011년의 열띤보다는 차분함과 치밀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는 바뀐 집행부 이사장인 Marc Decramer 교수와 부이사장인 Claus Vogelmeier의 차분한 성격이 반영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차분함 속에서 치밀하게 미팅을 준비하여 진행하였던 것이 인상에 남았다.

2. 본론

GOLD 이사회(Board of Directors)의 이사장(Chair)인 Marc Decramer 교수가 환영사와 소개의 발표로 회의가 시작되었다.

GOLD는 점점 더 후원사의 지원을 줄여가고 학계의 대표와 교류를 넓혀갈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포커스 그룹 개발하여 연구자 군을 확대하고 연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또한 집행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GOLD 사무실을 보스톤 같은 곳에 두어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주요 사업으로 매년 GOLD document를 개정하는 데 힘을 쏟기도 하지만 GOLD 업적으로 앱을 개발하고 interactive program도

개발하여 실제 진료하는 현장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하였다. Key performance indicator 를 발굴하고 해당 국가에 맞게 COPD 지침을 실제 진료에 구현하게 도움을 주고자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Directors 미팅을 오는 12월 13일 열 예정이며 이 미팅에는 Marc Decramer, Jorgan Vestbo, Jean Bourbeau, Bartolome Celli, David Hui, Victoria, Nishimura, Roberto, Stockley, Claus Vogelmeier 등이 참석하게 된다. GOLD는 Directors 회의 외에도 학술위원회(Scientific Committee)가 있으며 Jorgan Vestbo 등 다수의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이 두 위원회 외에도 GOLD는 Dissemination Committee가 있으며 Jean Bourbeau, Bartolome Celli, David Hui, Victoria, Masaharu Nishimura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Marc Decramer 교수에 이어서 부이사장인 Claus Vogelmeier 교수가 GOLD 2014 Update 내용을 소개하였다. 서문에 A, B, C, D 분류에 대한 추가적 근거 문헌을 소개할 예정이며 영양을 적절히 공급하는 것이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분명히 COPD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체계적 문헌고찰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재활로 운동능력 개선 효과가 있고 필요함을 강조하고 mMRC 호흡곤란 지표는 변화를 감지하는데 둔감하며 근거도 약하여 CAT이나 CCQ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기술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A~D 분류법이 일선의사가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CCQ는 일선의도 꽤 사용하고 있어 CAT이나 CCQ 중 하나를 사용하게 계획을 하고 있었다.

세 번째로는 COPD 확산(dissemination)과 실행(implementation)에 대해서 Jean Bourbeau 교수가 발표하였는데 GOLD implementation goals을 개별 국가나 지역별로 확립하여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미 매년 시행하는 World COPD day도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COPD를 홍보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뿐만



사진 1. 2013년 필라델피아 GOLD National Leaders 미팅에서 저자와 Marc Decramer 교수 사진 촬영.



사진 2. COPD 확산(dissemination)과 실행(implementation)에 대해서 Jean Bourbeau 교수가 발표하는 사진.

아니라 개별 나라에서 GOLD Leaders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고 각국의 호흡기 학술단체와 협력하여 GOLD와 GINA를 확산하고 실행하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네 번째로 전체 토론을 하였는데 두 페이지 분량의 포켓가이드도 좋지만 일선의에게는 다루어야 하는 질병이 많기 때문에 앱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생 교과서에 GOLD 내용이 반영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이탈리아에서는 이미 의학 내과학 교과서에 폐활량측정 및 GOLD 내용을 반영하여 매년 개정하고 있다는 경험도 나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체코의 경험을 함께 나누었는데 체코의 COPD 연구회와 호흡기학회의 COPD 확산 노력에 대해서 발표하고 논의하였다.

3. 결론

저자는 GOLD National Leaders 미팅에 몇 차례 참여하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다. 첫째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아시아권이 더 활발히 참여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유는 아시아 학자가 일본, 필리핀, 홍콩, 중국 등이 이미 참여하고 있지만 이 나라의 학자들의 경험이나 의견을 쉽게 개선하고 공유하게 하기 어려운데 이는 현재의 GOLD 조직이 아무래도 서양인들이 주도 상황이고 따라서 이를 개선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아시아권 유사 미팅을 새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GOLD가 이미 잘 운영되고 있는 세계적인 기구이기에 GOLD에 열심히 참여하고 의견도 개선하여 관찰하는 노력을 들이는 것이 앞으로 꼭 필요하겠다. 둘째로는 유럽이나 다른 나라는 의료제도가 우리나라와 크게 차이가 나지만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는 유사점이 많아서 이러한 인근 나라의 경험을 우리가 공부하고 공유하는 것이 노력을 덜 들이고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최근 일본도 COPD 지침을 개정하였지만 A~D 분류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 개념만 차용하여 이전 버전과 유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이렇게 개정된 지침이 일선의에게 아주 영향력이 있어서 실제 진료에 잘 적용된다고 한다. 이러한 일본의 경험을 우리나라에서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앞으로의 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도움이 크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